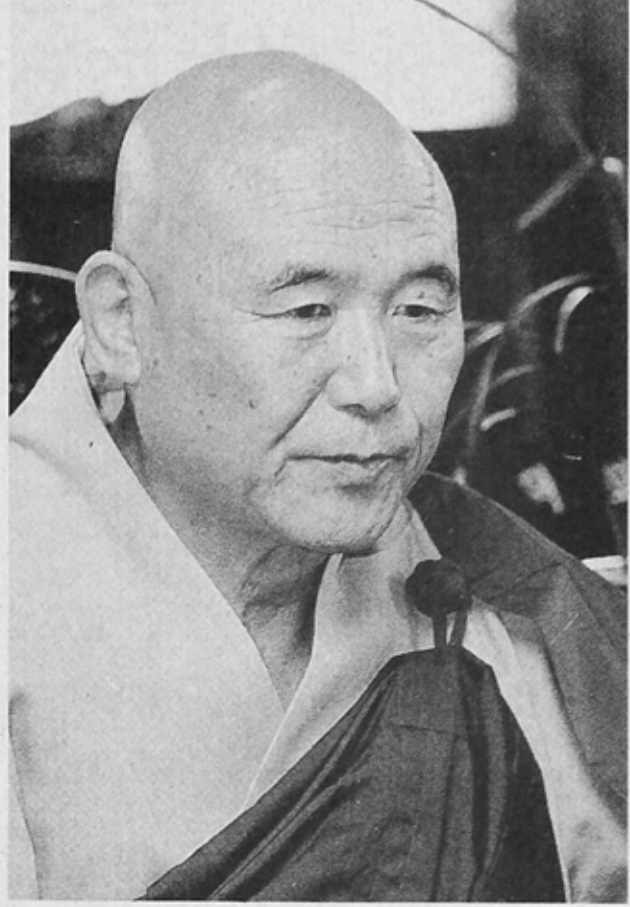


수요 인터뷰

“불교 재도약 위해 고통 감수 했어요”



탄성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개혁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개혁회의의 역할을 평가하신다면.

▲불법에 개혁이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시대적 문화적 환경이 변했으니 그에 알맞는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이거나, 불법의 정신을 이 시대에 꽃피울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개혁이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고통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종헌종법 개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산 끝에 선보이게 되어 그만큼 부담도 있었지요. 또한 개혁회의에 대한 반동세력의 준동도 있었습니니다. 그들은 개혁회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소송제기도 사안치 않았지요. 역사의 불결을 거스르지 않음과 노심초사했는데 불보살의 가피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개혁회의에 처음 참여했을 때와 지금의 심정은.

▲처음에는 젊은 스님들의 호법 의지를 격려하기 위해 동참했는데 개혁회의를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의 심정은 매우 답답하며, 이제 수행자의 고행인 수행도량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쁩니다.

—수행도량으로 가야죠.

—개혁회의를 마무리 하신 다음의 개인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법주사에서 대전 대덕연구단지 안에 대전사(泰田寺)란 포교당을 짓고 있는데 상경 전에 그 일을 관리 감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가면 전법도량을 원만히 건립하여 포교불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매우 혼란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불교의 역할은.

▲조선시대 이래 한국불교사는 굴곡의 역사입니다. 원인은 승려들의 수행이 부족했던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승단의 자기 반성이 절대 부족했던 점도 한 원인이지요. 이제 승단이 교육에 힘쓰고 대중교화에 노력한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사상적 윤리적 지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가 일반 대중들과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불교를 어렵다고 합니다만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쉬운 것입니다.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이 모두 수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기 마음을 닦아 그것을 깨치는 것이 불교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교육받고 의식이 건전한 승려들이 대거 종화에 진출한 것은 우려보다는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세대가 교체될 수 있고, 신선한 기풍이 종단 안팎에 조성되리라 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도덕부재

종헌 종법대로 운영하면 종단발전

인데 모르니까 어렵다고 단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문서·시청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 속으로 다가가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가의 수행 풍토가 과거와 달라졌습니까. 젊은 승려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수행방법은 한결같아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이나 포교의 방법은 바뀔 수 있겠지요. 젊은 스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계율을 수행의 어머니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투영된 승려의 모습은 대처·유주·육식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종회가 대폭 젊어졌습니다. 새 종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경험이 많고 수행이 원만한 스님들이 종단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면 더없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단에서 활동하던 스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은 만큼 또한 한편으로 끊임없이 발생한 분류에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은.

▲한국인이 지닌 사대적인 의식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서 가능하지요. 즉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불교적 수행

이 절실합니다. 또한 불교는 부모·나라·종생·부처님의 은혜를 철저히 하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을 현양하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계율은 수행의 어머니

—한국불교가 세계화되기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한국불교는 현재 직재적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며, 나아가 승려교육이 어렵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철저한 수행정도를 조성한다면 분명 세계불교권을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선남자로서 참선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을 수행하면 남녀·노소·빈부·승속을 막론하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시간을 아껴 참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선의 대중화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부득이한 선택

—21일로 새 총무원장이 선출됩니다. 차기 총무원장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개정된 종헌종법대로 여법하게 운영하시면 잘 되리라 봅니다. 모쪼록 종단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개혁을 지지해 주신 공도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서암스님을 비롯 일부 스님들께 누가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단발전을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법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교 발전을 위한 아픔이었다 생각하고 종단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94. 4. 10 : 조계사 전국승려대회
- ▲ 4. 13 : 조계사 법불교도 대회, 서의현 총무원장 사퇴, 원로회의 개혁회의 인준, 개혁회의 현판식
- ▲ 4. 15 : 중앙총회 해산 결의
- ▲ 4. 19 : 개혁회의 사무식
- ▲ 4. 22 : 개혁회의 (의장 율하) 본회의 개최, 율하스님, 국민과 종교에서 드리는 담화문 발표 (종도에게는 개혁 동참, 국민에게 개혁성취를 위한 이해와 협조, 정부에 대해서는 법난유발에 대한 유감 표시)
- 개혁회의 김영삼 대통령에 '대통령 공개 사과, 최형우 내무장관 사퇴' 요구 공개서한 보내고 27일까지 답변요구
- ▲ 4. 26 : 서암스님 종장직 사퇴, 참회 성명 발표
- ▲ 5. 3 : 동화사 은혜사 선본사 보존사 직영사할 지정, 청하 일타 도원 성수 법암 수산스님 원로의원으로 추가 선임
- ▲ 5. 10 : 용주사 종신사를 필두로 전국 본말사 공청회 시작
- ▲ 5. 13 : 제9대 종정 율하스님 후대식 (조계사)
- ▲ 5. 28 : 조계사 및 각 교구본사별로 3. 29, 4. 10 법난 책임 추궁 백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 ▲ 5. 29 : 정혜도량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앙승가대 정진관)
- ▲ 6. 7 : 무공스님 동화사 주지 취임, 동화사 본말사회의 개혁회 개혁동향 선언
- ▲ 6. 8 : 승가교육 개혁을 위한 세미나(중앙승가대), 은혜사주지 일타스님 임명
- ▲ 6. 10 : 개혁회의 상무대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조기현씨 처벌과 공청조사 촉구성명 발표
- ▲ 6. 16 : 최형우내무장관 조계종 총무원 방문, 법난에 대한 유감표시
- ▲ 6. 18~19 : 방주총 개혁성취 결의대회(조계사)
- ▲ 6. 22 : 개혁회의 의장 석주스님 선출
- ▲ 6. 28 : 초심회계위원회 개최, 의헌 규범 보일 무성 원주스님 체탈도량
- ▲ 7. 6 : 2백여 철도·지하철 노동자 수계식(조계사)
- ▲ 7. 11 : 율하종정, 탄성총무원장 청와대 방문
- ▲ 7. 13 : 16인 종헌 종법개정안 기초위원회 구성, 9인 종헌 전문심의위원회 구성
- ▲ 7. 19 : 불국사주지에 설조스님 임명
- ▲ 7. 20 : 봉은사 주지에 무상스님 임명, 광불법 법타스님과 이지범씨 국보보으로 추수
- ▲ 7. 23 : 재가불자연합 창립
- ▲ 8. 9 : 황진경스님등 34명 총무원장 탄성스님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 ▲ 8. 10~11 : 제 6차 개혁회의, 종헌 개정안 심의·의결, 차기 총무원장 직선 선출, 복지·교육·포교사업강화, 3권분립, 종회의원 결직금지, 교구총회 신설 의결
- ▲ 8. 18 : 전국 선인 수좌회 창립(해인사, 3백여명 참석) 제방의 선원규구 확립, 종헌 65조 2·3항 삭제요구
- ▲ 8. 29 : 법난대책위 '불교지주회토론회' 개최(불교회관), 종단 목적사업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휴스님, 중앙승가대 이전 및 정규승 승격, 불교병원 건립, 불교관계법 개정 준비사업 비준조 정 등 목적 사업 확정
- ▲ 9. 1 : 23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개혁회의 정통성 재확인, 해동행위 세력에 대해 경고
- ▲ 9. 24 : 방주총 개혁종헌 통과를 위한 단식집회 시작
- ▲ 9. 27 : 제9차 개혁회의 종헌 심의 의결
- ▲ 9. 29 : 원로회의 개정종헌 인준 선포, 재심회계위, 진경스님 체탈도량 확정
- ▲ 10. 6 : 종단개혁발상 보고대회(동도사)
- ▲ 10. 10 : 제10차 개혁회의, 중앙총회법등 8개 종법 제정 개정, 개혁회의 2개월 연장
- ▲ 10. 11 : 백양사주지에 지선스님 임명
- ▲ 10. 18 : 해동행위 조사 특별위 활동보고 기자회견
- ▲ 10. 20 : 중앙·교구총회의원 후보 등록 시작
- ▲ 10. 27 : 종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진신식
- ▲ 10. 29 : 원각사지 10층 석탑 훼손에 따른 성명서 발표
- ▲ 10. 31 : 성수대교 붕괴, 총주회 유람선 화재 등으로 유명 달리한 영가천도 위령제 봉행
- ▲ 11. 4 : 황진경 외 16인 종단소송 각하
- ▲ 11. 7 : 제 11대 중앙총회의원 48명 직선
- ▲ 11. 8 : 직능 및 비구니 총회의원 30명 선출
- ▲ 11. 9 : 총무원장 후보에 율주·율탄스님 등록
- ▲ 11. 14 : 각 교구별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 ▲ 11. 16 : 제11대 종회 개원, 신인 총회의장에 설정스님 선출
- ▲ 11. 21 : 총무원장 선출
- ▲ 본 말사 주지 인사 총 190건

석림불교아카데미

직장인, 전문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시민을 위한 불교사회학교

“개달음의 숲 진리의 삶”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사회, 역사, 문학 등 각 분야에 걸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내는 현장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전문 분야에 계신 스님, 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토론하는 불교사회학교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에 대한 올바른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일구어 가는 시민의 학교입니다.

● 석림불교아카데미는 1학기 과정이 3개월이며 매주 1회(90분)강의로 진행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1994년 10월 15일부터 석림동문회 사무실

대상: 직장인, 전문인, 주부, 대학생 등 일반 시민

강의 요일: (수) 오후 2시 중대일 (토) 오후 3시

문의: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산빌딩 301호

전화: (02) 722-2215 / 팩스: (02) 739-2047

개강일: 1994년 11월 30일(수), 1994년 12월 3일(토)

회비는 학기당 6만원(교재비 포함)

1기 강의내용 및 강사(강의 진행순)

1. 포스트모더니즘과 열린 종교 윤영해 / 동국대 강사
2. 아함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육성 성일 스님 / 강남포교원장
3. 반야의 세계 석우 스님 / 반야정사
4. 유마의 가르침 원명 법사 / 전 해군 군종감
5. 법화경의 세계 연혜 스님 / 동국대 강사
6. 현대사회에서 미혹사상의 실천적 과제 율탄 스님 /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7. 불교미술기행 진철문 / 조각가
8. 선의 역사 성본 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9. 달마 이야기 동성 스님 / 석화사
10. 열린 사회와 불교의 역할 진관 스님 /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11. 불교와 문학의 관계 지현 스님 / 시인
12. 불교에 습합된 토속신앙 진일 스님 / 동국대 강사
13. 천수경의 올바른 이해 김호성 법사 / 동국대 강사
14. 화엄의 바다 해주 스님 / 동국대 교수

*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니 회원은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산빌딩 301호
전화: 722-2215 / 팩스: 739-2047